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3. 5.(화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•과장 박정수, 사무관 백정호, 주무관 김관식 •☎ (044) 201-3541, 3540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건설현장 불법외국인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법무부, 고용부와 함께 매년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을 적극 추진 해오고 있으며, 금년 브로커 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건설근로자에만 적용하는 발주자의 임금직불제* 및 전자카드제** 등을 조속히 확대 시행하여 불법 외국인력의 진입을 차단하는데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.
- * 국토부 및 산하기관 전면시행(18.1~)이며, 금년 하반기 공공공사 전체 확대
- ** 국토부 산하기관에 우선 시범사업 추진 중(60개소)
- 추가로,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내국인 정규직 고용비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시공 능력 평가에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jtbc, 3. 4.) >

- ◆ 공사장 불법 외국인 노동자 뒤편...단속 비웃는 불법브로커
 -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약 31만명, 이중 80%이상이 불법노동자
 -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없고, 건설업체들 역시 이를 묵인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건설산업과 백정호 사무관(☎ 044-201-35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